

스케일업 분야 15조 투자... 딥테크 유니콘 10개 이상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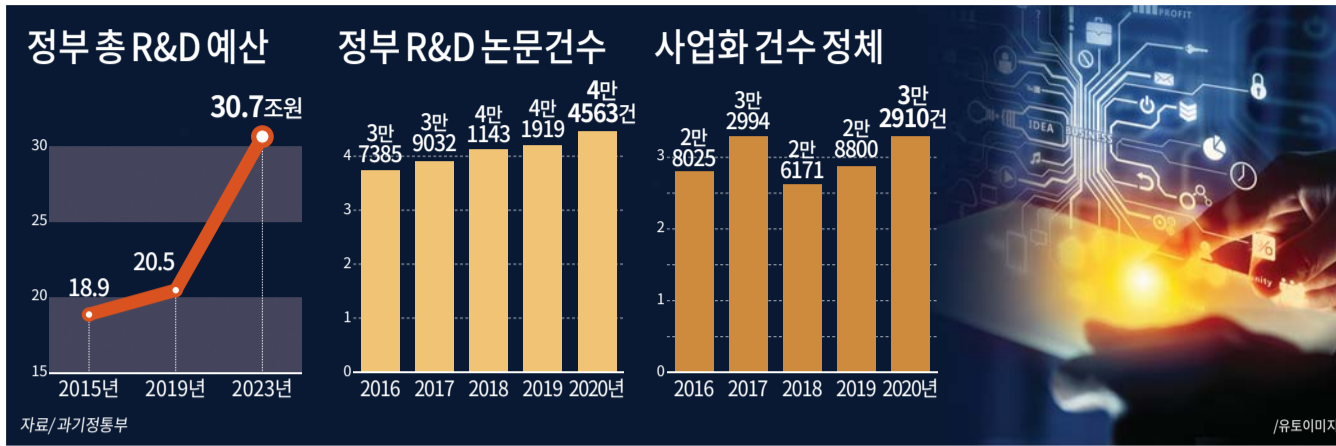
과기부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 TF 구성 민간 주도·참여 확대 등 방향 제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스케일업 분야에 약 15조원을 투자한다. 딥테크 유니콘 기업은 10개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딥테크는 기존에 없던 과학적 발견을 통해 등장한 모방이 쉽지 않고, 파급력이 큰 기술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스케일업에는 실험실 수준의 기술을 고도화하는 '기술 스케일업'과 스타트업 규모를 성장시키는 '기업 스케일업'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연구개발(R&D) 30조원 시대를 맞아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혁신기업 창출 등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고리를 공고히 하고자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딥테크 유니콘 10개 기업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민간 주도 및 참여 확대 ▲범부처 함께 달리기 강

화 ▲기업 지원방식 다각화 ▲생태계 중심의 지원 강화 등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임무지향적 딥테크 분야 전략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스케일업 정부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R&D와 연계한 정책펀드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 신설 등

스케일업 분야의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 관점에서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범부처 함께 달리기를 통해 시작품·시제품·조달까지 전주기 연계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기술 데이터베이스(DB)에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적용해 유망기술 선별 및 유망기술 그룹(Pool)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유 등을 바탕으

로 사업화·기획창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의 글로벌 우수 특허 창출·선점을 위해 표준특허 확보, 혁신기업의 지식재산권(IP) 종합전략 수립 및 국내·외 특허 출원·관리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기업 R&D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혁신역량 진단체계를 도입해, 기업의 혁신역량에 맞춰 전략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투자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바탕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와 민간,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R&D를 통해 만들어진 유망기술 씨앗을 키워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우리 아이 첫 안심폰 '신비 키즈폰3' KT가 '신비파트' 캐릭터를 적용한 LTE 기반 어린이 전용 스마트폰 'KT 신비키즈폰3'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KT 신비키즈폰3'은 공식 온라인몰 KT샵과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13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KT

코오롱인더, 친환경 바닥재로 유럽시장 노크

독일 도모텍스 하노버 2023 참가 고객사 파트너십 증대, 신규고객 발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유럽 시장 공략에 힘을 더한다.

코오롱인더는 12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개막하는 도모텍스 하노버 2023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도모텍스 하노버는 글로벌 바닥재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전시회다. 동종 업계에서는 최대 규모. 전세계 60여개국에서 1400여개 업체가 참여해 3만5000명 이상이 관람한다.

코오롱인더는 2011년부터 전시회에 참가했으며, 올해에는 친환경카페트에 사용하는 기포지인 '폴리에스터스펀본드(브랜드명 피논)'를 주력으로 내세웠다.

코오롱인더는 친환경 제품 특별전인 '더 그린 콜렉션'에 부직포 업체 중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국내 업계 최초로 폐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을 출시해 GRS 및 환경성적표지(EP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도모텍스 하노버에 참가해 폴리에스터 스펀본드 등을 소개한다.

D) 인증 등을 취득한 성과다.

코오롱인더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럽 현지에 기존 고객사들과 파트너십을 증대하고 신규고객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NON-WOVEN 사업을 맡고 있는 최현준 담당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폴

리에스터 스펀본드가 갖고있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판단해 전시회에 참여했다"라며 "국내를 넘어 유럽 등 글로벌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지속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KCC, 친환경 VI용 세라믹 본격 양산

(진공차단기)

국내서 유일하게 생산

KCC가 SF6-프리(Free) 친환경 진공차단기(VI)용 세라믹 제품 개발에 이어 양산에 돌입했다.

12일 KCC에 따르면 진공차단기용 세라믹은 접합 성능, 조직 치밀성, 진공 기밀성이 우수해 송배전용과 수배전용 진공차단기에 주로 적용되며 전기·전자용 절연 부품의 핵심 소재다.

이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인증하는 '세계일류상품'에 14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전력산업용 가스차단기에는 절연 성능이 좋은 SF6 가스가 주로 쓰인다. 하지만 SF6 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대비 온난화 지수가 2만3000배 이상 높은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대기중에 한 번 배출하면 3200년간 존재하면서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주목되고 있다.

SF6-Free 친환경 진공차단기는 외경이 180mm 이상의 대규모로 AI₂O₃

3 세라믹이 사용된다. 진공차단기용 세라믹은 전류의 정상부하 개폐 및 전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로를 분리하는 진공 차단기에 사용되는 세라믹 소재로, 국내에선 KCC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유수의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

KCC세라믹이 적용된 친환경 진공차단기에는 순수대기를 활용하는 최첨단 진공기술기반으로 SF6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KCC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치열한 기술혁신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KCC의 소재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는 물론 친환경성까지 고려한 제품 개발로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제주항공, 시간 잘 지키는 항공사 '세계 5위'

국내 항공사 중 1위

제주항공이 전 세계 항공사 가운데 운항시간을 잘 지킨 항공사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서는 1위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여행 정보제공업체 OAG 분석 결과, 지난해 시간을 가장 잘 엄수한 항공사는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이라고 보도했다.

OAG는 연간 공급좌석킬로(1좌석킬로는 한 좌석으로 1km를 비행한 것)가 가장 많았던 250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정시 운항은 예정된 시간의 15분 내 이·착륙한 항공편으로 분류했다.

가루다의 정시 운항률은 지난해 95.6%에 달했고, 제주항공의 경우 정시 운항률은 91.8%로 전세계 5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항공사인 사페어와 독일 루프트한자의 자회사인 유로윙스는 두 회사 모두 95.3%의 정시운항률을 기록하며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이 각각 88.8%, 88.1%로 그다음이었다. 일본 항공사들은 '상위 20위' 가운데 절반인 10곳이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LGU+ 알뜰폰 ESG 요금제 한달만에 가입 1000명 눈앞

LG유플러스는 알뜰폰(MVNO) 전용 ESG 요금제 '탄소 중립 실천 요금제'가 출시 한달여 만에 가입자 1000명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실생활에서 가볍게 시행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행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탄소 중립 실천 요금제'를 선보였다. 환경 보호, 기부 등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높은 MZ세대 반응이 긍정적이다.

/채윤정 기자